

수천 년 검증된 이야기가 내 인생 기준으로 고전 읽기 열풍

송원이 자유기고가



고전 열풍이 거세다. '불황기에 고전이 뜬다.'는 말에서 보듯, 현실에서의 고전(苦戰)을 만회하기 위해 고전(古典)에서 근본적 지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불황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만 1,000~3,000년 전의 양서를 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전 열풍이 본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현대인들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부터 배우겠다

고전 읽기에 새롭게 눈뜬 대상은 기업이다.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영학 이론을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부터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경영진들은 인문학 고전 강좌를 듣고 있다. 이정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경제 질서가 흔들릴 정도로 경제 위기의 골이 깊었던 만큼 새로운 해결책에 갈증을 내고 있는 시기"라며 "CEO들이 과거로부터 지혜를 빌리기 위해 고전을 많이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기관, 관련 협회,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인문학 고전 강좌를 앞다퉈 개설한다.

기업들의 고전 읽기는 '융합', '창의적 인재'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더욱 활발해진다. 여러 지식, 기술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기치 아래, 기업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을 융합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인재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이 달라지면서 그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도 따라서 변화한다. 본래 이공계 중심으로 출발했던 대학도 학제를 개편하여 인문학 과정을 강화하고, 통섭인문학이나 융·복합 과정으로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을 시도한다.

입시용 고전 풀이도 성행해

고전에서 해답을 찾는 트렌드는 입시 현장으로까지

내려왔다. 특히 고전이 중·고등학교 문학,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능 언어 영역, 논술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온도는 매우 높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전의 뜻을 쉽게 풀이하고 현대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좋을지 토론하는 강좌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이왕이면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고전을 어려서부터 접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풍부한 지식적 토양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이 '입시용'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이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텍스트라는 점, 선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점, 수천 년을 검증되어 온 지식이므로 자기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도 고전 공부의 열풍을 설명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려서부터 고전을 읽을 필요는 없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 씨는 초등학교 3~4학년 때는 인문고전 저자들의 이름을 수시로 들려주며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위대한 책을 썼는지 정도만 알려주라고 조언한다. 전통적인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5학년부턴 가능하네, 그 전에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고전을 읽고 공부하려 할 때는 혼자 읽는 것보다 인문고전 연구가의 강의를 듣거나 관련 집단이 주최하는 고전 강독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도서관이나 지자체, 구청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가 매우 많아졌다. 연구공간 수유+너머(<http://www.transs.pe.kr>)에서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가 자주 열리고, 한겨레사이버문화센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동양고전읽기 인터넷 강좌도 개설했다.

고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고전 열풍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대학의 인문학과들



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며, 우선적 통제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학생들은 교양 과목도 문학과 역사, 철학보다 취미, 취업을 더 선호한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고전과 인문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대학교수의 표현대로 '느리고 반성적이어서 결과물이 화끈하지 못한' 고전을 현대로 끌어와, 성공의 핵심 수단, 처세술의 기본 바탕으로 여기는 풍토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 고전 읽기를 통해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와 미래를 투시하는 힘을 얻어야 한다. 수천 년에 걸쳐 검증된 이야기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행복을 맛보아야 한다. 물론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삶이 풍부해지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찬찬히 곱씹어 볼 문제이지만, 이 역시 고전에서 선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